

CharadeU

EXHIBITION

2011 / 01 / 25
ART IN CULTURE

1. 12 ~ 2. 19 대구 리안갤러리(<http://www.leeahn-gallery.com/index.html>)



허수빈 <여인숙> 백라이트 사진출력 LED, 90x60cm, 2009

셔레이드(Charade)는 일종의 수수께끼 놀이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설명하는 각각의 다른 음절을 연결하거나 추측하여 단어나 구절을 맞추는 게임이다. 강은구 김병주 손유미 허수빈 4명의 작가들이 만들어 내는 각각의 이미지와 내러티브가 하나의 큰 의미이자 풍경인 전시에 도달하며, 분절된 의미의 연결을 통해 하나의 답을 구하는 놀이의 과정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작가들이 숨 쉬며 생활하는 도시 공간을 각자의 방법과 시각으로 다루고 빛을 매개로 만들어 낸 낯선 풍경은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듯한 재미와 긴장감을 준다.



김병주 <Enumerated Void> 철 우레탄 도색, 가변설치, 2010

053)424-2203